‘건강한 체력, 경쟁과 협력, 화합과 전진’

제57회 제주자치도민체육대회 표어·구호 등 확정
4월 21~23일 한림운동장 메인 제주시 일원서 열려

120만 내외 도민의 화합과 제주체육의 도약을 위한 제57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분위기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한림종합운동장을 메인경기장으로 오는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봄에 개최되며, 야간 개회식으로 막이 오른다.

대회를 앞두고 표어는 ‘건강한 체력, 경쟁과 협력, 화합과 전진’으로, 구호는 ‘다함께 미래로 스포츠로 빛나는 제주’,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도약하는 최고의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스포츠로 건강한 도민’으로 정해졌다.

엠블럼은 JEJU 와 JUMP의 J를 12개 지역 선수들이 달릴 트랙에 제주시의 컬러를 담아 표현했다.

JUMP는 2026년 전국체육대회를 향한 제주체육의 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J의 말미에 계단모양은 한 걸음씩 위로 도약한다는 뜻을, 그 위에 불꽃은 성화의 불꽃을 의미한다.

지역의 스포츠 활동을 대표해 온 종합체전으로서 도민체육대회가 2020년 코로나19로 순연된 후 도체육회는 이듬해 방역대책을 세워 제55회 대회를 36일간 종목별 무관중 경기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2022년 10월에는 정상 개최해 도민체전의 면모를 되찾았다.

이번 대회에서 진행되는 야간 개회식은 체육행사에 문화를 접목해 참가자 우선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스포츠, 문화, 교육, 신기술 등을 접목한 종합 축제의 장을 위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회식은 사상 최초로 도립예술단 정기공연과 함께 치러지며, 인기가수공연, EDM 공연 등으로 개회식이 끝나도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캠핑존을 구성해 스포츠+콘서트를 합한 ‘스포콘’이 열린다.

가상현실을 개회식에 녹여내 즐거운 볼거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체험부스 등 각종 체험·홍보관을 운영해 체육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즐길 수 있는 종합 체전을 준비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클린스만호 출격 준비!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의 평가전 대비 훈련에 앞서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야구 올해 전국대회 열전 돌입

2023 신세계 이마트배 오늘 개막… 내달 10일까지
역대 최대 93팀 참가… 제주고, 충암고와 격돌

고교야구가 신세계이마트배를 시작으로 2023시즌의 막을 올린다.

22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2033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9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경주베이스볼파크에서 개막해 4월 10일까지 19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팀에게 총 1억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피칭머신, 야구용품 등)을 시상하고 모범상과 베스트퍼포먼스상 수여 팀에게도 3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우수포수 상을 추가 신설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 프로야구 우승팀(SSG랜더스)의 홈구장인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결승전 개최 및 클럽하우스 투어를 진행하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시상식 등으로 참가팀은 물론 일반관중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제주 고교야구의 유일무이한 제주고도 출사표를 던졌다. 박재현 감독이 이끄는 제주고는 대회 첫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주베이스볼파크 구장에서 강호 충암고와 맞붙게 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3년 8개월여 만에 전국대회 승리를 기록했고, 모범상까지 수상하는 등 의미있는 대회여서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박상원, 안경준 3학년 투수 3인방이 마운드를 지키고, 황욱과 이주영이 주축 타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포수 이현우와 양우석, 김보형 등도 힘을 보태게 된다.

한편 대회 32강전까지는 경주베이스볼파크 1, 2구장에서 진행되며, 16강 이후부터는 목동야구장, 결승전은 SSG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찰떡궁합’ 제주여고 오연주-부서연 우승

중고배드민턴회장기
여고 3학년 복식 1위
남·여 복식은 준우승

여고부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제주여고. 왼쪽부터 허원보 감독, 오연주, 고보민, 부서연, 조아라 지도자.

오연주-부서연(제주여고) 조가 2023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복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국내 정상권인 오연주-부서연은 22일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 3학년부 복식 결승전에서 유은채-송채민(대성여고) 조를 2-0(21:14, 21:15)으로 격파하며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정상 등극에 성공했다.

오연주-부서연은 앞서 21일 치러진 준결승전에서 김근혜-박나현(성지여고)에게 2-1(21:15, 17:21, 21:11)로 승리하며 결승전 무대를 밟았다.

같은 시간대에 치러진 남고 3학년 복식 결승전에선 이민욱-박준형(제주사대부고) 조가 장재웅-백승원(서울체고) 조에 0-2(19:21, 17:21)로 석패하며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이민욱-박준형은 준결승전에서 문종우-전우찬(매원고) 조를 2-0(21:13, 21:17)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앞서 열린 혼합복식 고등 3학년부 결승전에서 박준형-오연주 조는 장재웅(서울체고)-장다혜(창덕여고) 조를 맞아 첫 세트를 21:13으로 따내며 정상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지만 2, 3세트를 연달아 내주며 1-2로 물러서야 했다. 박준형-오연주는 준결승전에서 신수현(전남기술과학고)-구나연(화순고) 조를 상대로 2-0(21:14, 21:15) 승리를 거뒀다. 박준형-오연주와 함께 입상을 기대했던 이민욱-부서연 조는 8강전에서 장재웅-장다혜 조에 1-2로 패하며 4강전 진출이 좌절됐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남고 2학년 단식 준결승전에서 손호성은 이선진(광명북고)에게 1-2로 역전패하며 정상등극에 실패했다. 여고부 단체전에서도 제주여고(오연주, 부서연, 고보민)는 3위에 입상하며 시즌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프로야구 4년 만에 팬들과 ‘플레이볼’

오는 30일 KBO 미디어데이

프로야구 KBO리그가 4년 만에 팬들과 함께 정규시즌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3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SSG 한유섬, 박종훈, 키움 이정후, 김혜성, LG 오지환, 박해민, KT 박경수, 강백호, KIA 김선빈, 김도영, NC 손아섭, 구창모, 삼성 오재일, 원태인, 롯데 안치홍, 박세웅, 두산 허경민, 양의지, 한화 정우람, 채은성 등 KBO 리그 10개 구단의 주장과 각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석한다.

올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야구 팬들도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초대된다. KBO 리그 41주년을 맞아 총 4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4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 신청은 22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KBO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팬들의 안전한 관람과 편의를 위해 지정좌석제(랜덤 배정)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전 이벤트 안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 및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KBO는 설명했다.

공식 행사에 앞서 입장권을 소지한 팬 중 110명을 대상으로 10개 구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사인회가 개최되며, 오후 2시부터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가 시작된다. 조상윤기자